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報道資料 [2012. 5. 7.]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전화번호	061-270-2069
	담당자 (e-mail)	차미영 (cmymy040301@hate.com) 임경희 (zoman@hanmail.net)	F A X	061-270-207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게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차미영 씨, 국제목재보존학회로부터 젊은 과학자상 수상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에서 보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차미영(34)씨가 5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목재보존학회 제43차 연례회의에서 젊은 과학자상(Ron Cockcroft Award)을 수상했다.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는 2009년부터 고려시대 난파선 3척(마도1, 2, 3호선)이 발굴되었고, 그 안에서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죽찰(竹札·대나무에 글을 써 놓은 것)과 젓가락, 바구니 등이 출수(出水) 되었다. 수중에서 대나무 유물이 발굴된 것은 그 예가 매우 드물며, 그동안 보존처리 방법이 연구되지 않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죽찰 등 대나무 유물이 발굴된 이후 유물 특성에 대한 분석연구와 함께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 연구결과로 국제학회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국제목재보존학회(International Research Group on Wood Protection)는 목재보존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53개국 350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상은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7개국 11명의 연구자가 수상한다.


또 차미영씨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서해에서 출수된 수침대나무의 미시형태적·화학적 특징(Micromorpholog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Waterlogged Archaeological Bamboo Excavated from the Yellow Sea)’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조사뿐 아니라 발굴 유물의 안전한 보존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국제목재보존학회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은 수중발굴 유물에 대한 보존 연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붙임 : 수상자 약력 및 사진자료 1부. 끝.

수상자 약력 및 사진자료

1. 차미영 약력

	1977	충청남도 서산 출생
	2003	한서대 화학과, 문화재보존학과(복수전공) 졸업
	2006	전남대 임산공학석사 졸업(수침고목재 연구)
	2009	전남대 임산공학박사과정 수료
	2009~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직

2. 사진자료



마도1호선 출수 죽찰



마도1호선 출수 대바구니(수중사진)



수침대나무 분석연구 중인 차미영 씨